

이렇게 들었다

환경대책

“흙과 물은 나의 옛 몸”

■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지는 것이다. <유마경>

■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행할지니라. 세세 생생 몸을 받아 상주하는 법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쳐 방생하게 하고 항상 널리 교화하여 보살계를 강설해 중생을 구제해야 하느니라. <법망경>

■ 저 불국토에는 목욕할 수 있는 호수가 수 없이 있다. 그 호수에는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물(八功德水)이 월형 넘치고 맑은 향기가 풍겨 마치 갈로수와 같은 느낌이다. 호수 속에는 푸르고 붉고 노랗고 흰 연꽃이 눈부시게 피어 물 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 연꽃에서 목욕을 하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환희에 넘쳐 마음의 때가 말끔히 씻긴다. <무량수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월 30일 지난해부터 지역주민간의 원만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진통을 겪어 온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 본회의에 넘겼다.

이 특별법안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가 물을 공급 받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상류지역 주민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상류지역 오염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장관뿐 아니라 해당 시도지사도 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수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유지인 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따른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은 수계관리 기금으로 지원토록 했다. 환경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적극 반영할만하다.

불교에서도 환경사상은 '심정정국토청정(淸淨國土淸淨)'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을 통해 '환경과 우리 몸이 둘이 아님(身土不二)'을 말씀하셨다. <사분론>에 보면 "발우를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뱀·상아·뿔 같은 것으로 바늘 등을 만들지 말며,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또 <보리행경>을 보면 "일체의 유정은 무량한 수명을 갖게 하라. 항상 즐겁게 살고 죽음이란 말마져도 없애지게 하라. 또 모든 것은 부처님과 불자들이 가득하여 법음이 언제나 즐겁게 울리게 하라. 모든 생물들에게 새 나무 광선 허공으로부터 법음의 울림이 설 새 없이 들리게 하라"고 설하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법적인 제재보다는 이에 앞서 국민들 모두가 스스로에게 적게 버리기, 생활하수 줄이기 등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끊임없이 주변에서부터 환경보존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김주일 기자

‘지적재산’ 훔치는 것도 명백한 범죄

물자 세상보기

지난 11월에 외국의 학회지에 실린 국내 대학교수의 논문이 외국 학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교수가 사과문까지 발표하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더욱이 논문의 공동저자인 한 교수는 자신은 표절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했는데, 그 말이 더 어처구니없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의 지적 재산을 훔쳐갈 주요 국가라는 뜻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났다고 말한다.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적으로 선두 업종인 산업분야도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 보호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제기된 외국 학회지의 논문 표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른다. 사회 각 분야에서 표절이 판을 치고 있다. 새로 발표된 음반의 표절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외국방송을 표절한 방송 프로그램도 많다. 해외 문학작품과 해외 학술서적의 표절,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상품의 디자인 표절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표절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표절 중 무단복제에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표절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인용으로 간주되는 표절은 불법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인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교수사회 논문 베끼기 끊임없는 표절시비 정의의식 없이 관행처럼

무단복제로 범법 행위가 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의 지적재산을 훔치는 것에 대하여 관대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복제 사실을 지적하면 도리어 비정하고 예의없는 인간으로 간주된다.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 선배 교수의 표절 사실을 지적했다가 자퇴하기도 했다. 심한 경우 오히려 불법행위자가 큰소리치거나 집단적으로 반발하기도 한다. 국내 지적재산권의 보호 역사는 선진



조성열 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무국장

는 불법복제 방지에 대한 제도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현재 세계는 정보통신산업을 주축으로 디지털 사회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는 지적재산이 중요시 되는 사회다. 남의 것이나 베끼고 모방해서는 정보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타인의 지적재산을 보호해야 우리의 지적재산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본론(本論)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이슬람과의 대화’ 강좌 연기 소식 듣고 아쉬움

지난 5일 불교아카데미가 계획했던 '이슬람과의 대화' 강좌가 연기돼 아쉬다. 더욱이 연기된 이유가 수강자 부족이라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 이번 강좌는 최근 일어난 9·11 테러 때문에 이슬람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아마 홍보만 충분했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참여인원부족 때문에 강좌가 연기됐다는 사실은 불교계 단체의 행사 추진력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화려한 대의명분에 비해 실제로 그 행사를 맡아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너무 허술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론의 흐름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추진된 행사가 없었더라면 교계 단체들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 회기동 강명현>

태고종 새 총무원장 종도간 화합 나서길

얼마전 태고종이 중앙총회에서 운산스님을 만장일치로 새 총무원장에 선출했다. 이것은 태고종단이 그 풍인 침체와 혼란을 면치 못했던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태고종은 총무원장 선출 문제로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너무나 크고 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태고종단 종도로서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따지고 보면 그 원

● 현대불교를 읽고

복지기사 많이 다뤘으면

얼마 전 한 불자가 모자보호원에 입소하려다 개종을 요구받았다는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 앞서, 불교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은 첫째로 종단에 인재가 없었다는 것이, 둘째는 종도들의 의식과 사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과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는 화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종단현실이 이 지경에 이르러 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새 총무원장 선출을 계기로 종도간의 화합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과거의 잘못된 인습과 사고와 선입견을 과감히 버리고 환골탈태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화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 안산시 김국성>

독거노인 119서비스 응급상황 병원이송

독거노인들을 위한 119서비스를 소개하려 한다. 나는 지방에 홀로 어머니를 남겨두고 서울로 올라와 고학하고 있는 불자

친년이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나름대로의 꿈을 펼치기 위해 상경은 했지만,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항상 맘에 걸려 걱정이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산동네 자취방에 몸을 누일 때면 마음 한 구석이 언제나 무거웠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그러나, 우연히 인터넷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원터치부름' 전화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척 반가웠다. 응급상황시 곧바로 119응급대에 연결돼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서비스라고 한다.

지금은 전화기가 설치되어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불자들에게 '119원터치 부름' 서비스를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됐다. <관악구 봉천동 박민석>

기고

집단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 보살핌 책임



이우상 소설가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4학년인 딸애가 핏기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6학년 언니를 몇 명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자꾸 위협한다는 것이다. 아이들 일에 부모가 개입하는 것은 불행사남다는 신념이 있는 터이라 그냥 흘려 들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이의 표정은 심각하다 못해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또래끼리 치고 박고 부딪치고 깨지고 하면서 자라는 것이라는 생동맞은 말로 아이를 달래기에는 사태가 심상치 않았다. 표적으로 삼아놓고 복도건 운동장에서건 마주치기만 하면 허리 숙여 인사를 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힘한 일, 굶은 일은 남에게만 생기는 것인 줄 알면서 사는 것이 우리네 심보다. 얼마 전 보도된 선모군(13)의 죽음도 남의 일이다. 또래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끝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다. 설 새 없이 괴롭히는 고통을 참지 못해 어린 생명이 꽃잎처럼 몸을 날려버린 것이다. 휴대폰으로 '엄마,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아이가 이 세상에 남긴 유언이 되어버렸다. 가해 학생의 정서적 결함, 폭력들의 유행, 학교와 교사의 책임 회피 급급이란 말마져 공허하다. '가칭 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법'이란 긴 이름의 특별법마저 미덥지 못하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구원을 호소하는 딸애에게 말했다. 한 번만 더 너보고 허리 숙여 인사하라고 하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해라. 언니가 강개야? 내가 왜 모르는 언니한테 인사해라고. 그리고 덧붙혔다.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서 단단히 혼을 내 주겠다고 딸애는 안심이 되었는지 울먹거림을 멈추었다. 그러나 나는 계속 분노를 삭히지 못해 부들부들 떨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부당한 괴롭힘이 있으면 분노하며 나서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어른된 자의 책무일 것이다.

서구인들은 왜 '라다크'를 꿈꾸는가?

작은 티베트 '라다크' 그 곳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인도 태생의 영국 시인이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앤드류 하비 지음 연호택 옮김

이 책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원제: A Journey in Ladakh)는

인도 태생의 영국 시인, 앤드류 하비가 라다크에서 만난 스승, 림포체(Thuksey Rinpoche)를 통해 얻게 된 영적 눈뜸의 과정을 그린 책이다. 글을 쓰기 전에 일정 상태에 들어가 마음 속에 떠오르는 라다크에서의 체험을 하나하나 살려내 글로 옮겼다. 지은이는 이 책을 쓸 때, 자신의 예고를 완전히 죽이고 림포체의 마음 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갔을 때 드러나는 생각과 지혜를 그대로 옮겼다고 한다.

저자 앤드류 하비는

인도 태생의 영국인 명상 수행가이자 시인이자 작가이다. 1952년 인도 뉴델리에서 태어나 9살에 영국으로 건너가 교육을 받았다. 21살에 옥스퍼드 대학 역사상 최연소 교수로 임명되기도 했다.

역사학자이자 시인, 세익스피어 연구자로 천재성을 나타냈지만 틀에 박힌 영국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25살에 인도로 돌아와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 살면서 파리, 독일, 뉴욕을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A51 378쪽 / 값 12,000원

예시아문 예시아문은 '물든 바 반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전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온라인 서점 www.yosiamun.com